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 광주 찾은 日 여배우 가가와 교코



82세의 노(老)배우 가가와 교코씨는 차분하며 단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석한 평론가 오타케 요코(78)씨가 칭찬을 할 때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부끄러워했다. 1950년 데뷔 후 오즈 아스지로, 미즈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 등 거장들과 작업한 그녀는 120여편의 영화에 출연한 '현역 배우'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광주일보사 등이 공동 주최한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에 참여한 그녀를 14일 만났다. 구로사와 감독과 '천국과 지옥' 등 모두 5편을 작업한 그녀는 이번이 첫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남 광주극장에서 열린 '붉은 수염' 씨네 데탕 참석 후 한정식으로 저녁식사를 한 그녀는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시수가 많아서 놀랐다고 웃었다.

'붉은 수염' 등 5편 함께 작업

82세 현역 배우

나이 들면서 자유로운 연기

"구로사와 감독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신 분이죠. 감독님의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한국 영화팬분들에게 감사 드려요. 아마 감독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제 씨네 데탕 때는 서울에서 오신 관객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영화가 상영된 극장이 영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지켜온 느낌의 오래된 극장이라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거장과의 작업은 어땠을까. 남성활극과 사회와 영화를 주로 찍은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에서 여성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감독님은 역할에 대해 배우에게 어떤 주문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죠. 이런 게 배우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독님은 세트 촬영에 들어가기 전 꼼꼼히 사전 리허설을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리딩, 메이크업, 의상까지 모두 갖춘 후 리허설을 해요. 감독님 영화에서 여배우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 여성 캐릭터도 항상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수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또 긴 컷 안에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결정적인 대사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항상 긴장하며 작품 속에 녹아드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배우로서 큰 자산을 얻은

작품에 녹아드는 법 배웠어요

항상 긴장하며

겁니다."

그녀는 구로사와 감독의 유작인 '마다다요'(1993)로 60이 넘는 나이에 일본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30여년만에 다시 만난 구로사와 감독님은 예전에 비해 촬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감독님 영화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일상적이지만 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좀 달랐어요. 주인공인 작가의 아내 역할을 맡았는데 '사랑'을 포인트로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대사가 그리 많지는 않아 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죠."

그녀는 특유의 단정하고 바쁜 이미지로 주로 정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실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영화에서 수염

복을 입거나 담배를 피웠던 게 딱 한편 뿐이었어요. '붉은 수염'의 광녀 역할은 기존에 해왔던 것과 정반대 역할을 해야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관찰하며 도움을 받았죠."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20년 넘게 가가와씨와 인연을 맺어온 오타케씨는 "아주 작은 일에도 성실성의 첫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통력을 가능케 했다"며 그녀는 늘상 손글씨로 감사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제가 책임감이 조금 강한 성격인 것 같아요. 초년 시절 아주 위대한 선배들과 작업하면서 늘 긴장하며 제 역할을 하려고 했죠. 또 젊었을 때와는 달리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이 들면서 더 자유롭게 연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재미는 또 다르거든요. 영화감독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예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감독의 세계관을 믿어주고, 짧은 감독들에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아요. 후배 연기자들에게 따로 조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깨닫고는 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 삶에 대한 태도 등에서 배우는 거죠."

그녀는 소장하고 있는 영화자료 등을 일본 필름센터에 기증했다. '개인의 역사' 이전에 일본 영화의 역사라는 생각에서다. 그녀는 또 동경여성영화제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최근작은 '더 인터미션'(2013)이다. 폐쇄를 앞둔 긴자의 오래된 극장 '시네파토스'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철거를 앞두고 그곳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아쉬운 마음에 만든 작품이에요. 객석에 홀로 앉아 구로사와 감독과 영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관객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날 왔던 관객 한명 한명이 모두 자신만의 드라마를 갖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처음 접한 한국 영화는 '집으로'. 또 '내 머릿 속의 지우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감명 깊게 봤다고 밝혔다. 인상 깊게 본 '취학선'의 임권택 감독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에는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흐림·모호·파문' 갤러리 아크 이설제 초대전



'파문'

사진작가 이설제씨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더하거나 지워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배경 화면을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배경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풍경용 몽환적 느낌의 회화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갤러리 아크는 17~31일 사진작가 이설제씨를 초대해 '모호 & 파문'전을 연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내면의 사물과 마음의 동요, 세상 현상 등을 표현한 '흐림' '모호' '파문' 시리즈를 선보인다.

'흐림' 시리즈에서는 꽃과 인체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합일을 환상적이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로 표현했고, '모호'에서는 사물의 존재와 인연의 의미를 작가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잔잔한 수면에 일어나는 파문의 동심원에 시각적인 세련미를 더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파문'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조선포 미술과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현재 일본 아트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오마이 기카쿠 전속 작가로 활동중이며 일본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잊혀진 기억들' 고흥 도화천미술관 윤희호전



'기억을 건너는 시간'

고흥 도화천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도화천레지던시 작가 지원전 윤희호 '기억을 건너는 시간(Time To recall memories)'전을 연다.

윤희호는 이번 전시에서 잊혀가는 기억의 단편들을 끄집어냈다. 눈 내리는 골목길, 처마 사이로 내리는 비, 동네 개구멍이 등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추억을 화폭에 담았다.

풍자적 화면구성으로 표현한 작품 속 상황들에서는 한편의 동화책을 읽는 듯한 문학적 감각이 느껴지기도 한다.

윤희호는 두껍고 매끄러운 종이 위에 먹물을 입히고, 그 위에 오일크레용을 칠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도화천미술관은 올해 전남문화예술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박동근(서양화), 윤희호(서양화), 최정미(조각), 황진희(서양화), 김영욱(도예)씨 등 5명을 올해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했다. 문의 061-832-13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놓치지 마세요"

평론가 오타케 요코 추천 작품 4편

평론가 오타케 요코씨가 이번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20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작품 4편을 추천했다.

가장 먼저 추천한 작품은 '이키루다'. 구로사와 감독의 휴머니스트적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로사와 영화의 단골배우

인 시무라 다카시의 연기와 음악 등이 인상적이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공무원이 황무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본 영화 황금기를 보여주는 '붉은 수염'은 일본 대표 배우 미후네 도시로와 가가와 교코의 광녀 연기를 볼 수 있으며 구

로사와 감독의 유작인 '마다다요'는 나스메 소세키의 제자인 작가 우치다 핫켄의 삶을 다루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백치'는 구로사와 감독의 문예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볼 수 있다. 점에서 추천했다. 문의 062-224-5858.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피로연, 칠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아린이(초등학생)	미취학아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 | | | |
|---|--|---|
|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 봉골레
Yongole
₩10,800 | 밀리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
|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 |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